

크레이그 키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18, 마태복음 26-27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8회기 마태복음 26-27장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수난과 부활 이야기를 다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처음에 몇 가지 사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질문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을까요? 글썄요, 그는 확실히 자신의 죽음을 예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극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선지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글썄, 나 자신에게는 그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물을 미리 아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과는 별개로, 성전에 들어가서 탁자를 뒤집을 수도 없고, 성직자 귀족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면서 처형당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글썄요, 군대를 모집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아주 빨리 마을을 떠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조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난과 함께 읽은 사건들도 문제의 시대에 들어맞습니다.

앞서 Joshua ben Hananiah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반대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를 잡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심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와는 달리 추종자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위험하지 않았어. 또한 그는 예수와 달리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후에 로마 총독이 그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일이 행해진 방식은 그 당시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진 방식입니다. 로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 앞에 끌려온 사람들, 특히 지방 관리들에게 고발된 지방 귀족들에 의해 재판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난 설화는 많은 학자들이 마가보다 훨씬 이전의 수난 설화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난 설화, 마가의 순서와 바울의 순서는 비록 바울의 경우 매우 간결하지만 일치합니다. 또 다른. 유대인과 로마인의 책임에 대한 개념은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내 말은, 대부분의 복음서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다른 일반적인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정 서사에는 출신 지역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막달라 사람 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러티브 자체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처음 두 구절에서 관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계획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특히 다른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생각해낸 사람이라고 항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어쨌든 나는 그것을 생각해낸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기쁘네요.

어쨌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단어를 알릴 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틀리면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자 제자들과 남자 제자들 사이에는
대조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이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설화석고 향수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매우 값비싼 유리병이었고, 그 안에는 매우 값비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 가문의
가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연고가 너무 비쌌어요. 그것은
아마도 인도에서 수입된 일종의 나드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약병의 성질, 이 플라스크의 성질로 인해 연고를
꺼내려면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일부를 재밀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곳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입니다.
루크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들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미리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무덤에 가서 안식일 후에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이야기가 온 세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표현은 고대 문학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Ovid가 말했듯이, 나는 이 멋진 책을 만들었고, 내 이름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썄, 나는 Ovid가 누구인지 알고 고전주의자들은 Ovid가 누구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은 Ovid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Ovid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한 일 때문에 오비디우스보다 이 여인에 대해 들어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 제자들을 봅니다. 마태는 남자 제자들이 불평했다고 말합니다.

그 돈이 팔렸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글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우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친 것은 그에게 헌신의 표현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반응과 그녀의 반응을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유다의 반응과 대조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유다는 기본적으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물론 노예의 가격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요셉 시대에는 20세 겔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30세 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아마도 50세 겔이나 100세 겔 정도였을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성경 참조와 연결하고 양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 여자는 우리가 그곳에서 보아야 할 것의 모델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근본적인 전통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매우 일찍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기록된 복음서보다 더 일찍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입증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보, 다소 다른 순서를 제공하지만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그가 제공한 정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함께 사용될 때, 그들은 종종 조심스러운 구전 전통, 조심스러운 전통 전수를 암시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바울서신 모두 뒤에는 부분적으로 회복 가능한 아람어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유월절에 대한 암시도 있습니다. Joachim Jeremias는 나중에 그의 자료 중 일부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Joel Marcus는 최근 Duke로부터 이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월절에 대한 많은 암시가 여러 곳에서 후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실되었을 수도 있다는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해되었을 것이고 예수께서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제안했는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아마도 이 테이블은 제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충분히 클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이나 비슷한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은 왼쪽 팔꿈치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물건을 꺼낼 수 있는 오른손을 자유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파에 세 사람, 때로는 네 사람을 기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 특히 부유한 로마 집에는 세 개의 소파가 있는 트리클리니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에는 3~4명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 중 하나에 9명에서 12명 정도가 매우 편안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글썄, 당신이 그것을 얻은 방식으로 발은 테이블에서 먼 쪽을 향하게 되어 항상 테이블 앞쪽으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기대어 있으면 누구도 발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닿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옆에 기대는 다음 사람이 내 오른쪽에 기대어 있었다면 그 사람의 발이 내 발보다 더 아래에 있도록 여기에서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뒤로 젖히면 내 가슴에 기대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장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께서 그에게 쉽게 빵을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앉았거나 왼쪽에 기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누가복음 7장에서 다른 여자가 예수께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께서 시몬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이야기의 특정 지점에서 그녀에게로 향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옆 소파에 앉아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한 위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그의 발치에 있고 그의 발이 테이블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몸을 돌려야 합니다.

글쎄, 사람들은 연회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잔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식사할 때마다 기대지 앉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곤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랍비 밑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들은 종종 먼지 속에 그 사람의 발 밑에 앉곤 했습니다. 하나, 하나, 또는 그 문제에 대한 미쉬나, 사도행전 22:3 또는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

그러나 유월절 잔치에서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 따라 식탁 위에서 손바닥 한 뼘 정도 높이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식사에 대해 그리스 연합 모임, 바리새인 카비라 모임, 안식일 키두쉬 등 다양한 배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증거가 실제로 유월절 식사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에서 살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사용하신 언어는 희생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십니다. 그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느니라.

이사야 53장은 다른 것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가 그분에 대해 배운 다른 것들의 더 큰 맥락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는 빵이 그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유월절 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빵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견해를 고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몸과 피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적혈구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과 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대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니 사랑해.

그들은 또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해서 식인 풍습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문맥을 기억한다면, 주인은 일반적으로 가장이었고, 유월절 문맥에서는 식사의 특정 요소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었던 고난의 빵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먹던 빵과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빵은 1300년 정도 된 빵이고 이미 다른 사람이 씹어 먹은 빵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누군가가 매일 남은 음식을 먹었는데 원래의 음식을 찾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유월절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은 다른 문화 환경에서 받아들여질 때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새로운 설정에 대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만, 우리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상황 때문에 오해할 것이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의 만찬이 거행되고 있는 고린도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 그들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연회를 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회 계층의 동료들을 초대하는 연회의 주인이 있거나 약간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고객이 되고 사회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와 관련된 다양한 고대 저자들, 특히 로마 저자들에게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리스에 있었지만,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 문화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치에서 서열에 따라 앉았고, 사람들은 서열에 따라 아주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다른 문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그들이 당신을 더 높은 자리에 초대하면 음, 하지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요구받지는 마세요.

사람들은 연회 상황에서 사회적 지위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비굴하게 굴었고 그들에게 이 음식을 주고 다른 호의를 베푼 후원자를 존경하게 되었는지 불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르게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전체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모든 것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반에 걸쳐 이 열정 이야기를 향해 상황이 구축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특별히 설명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20장 28절에서도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베오 시대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자의 피, 의인의 고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에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에 대해 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두 번이나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까지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십자가의 잔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입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끄러움의 기준에도 부합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자고 있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건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나는 그 대답을 확실히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잠이 들락날락하다가 그 중 일부를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참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로 그들이 그 후 40일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어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친구들에게 그가 괴로울 때에도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유월절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월절에는 그들은 그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제자들이 행동하는 방식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의 스타 제자는 그를 부인합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 중 하나가 그를 배신하여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다른 것으로 만드신 것처럼 그들을 다른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그분을 실망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는지를 더욱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47-56절에서 배반에 대해 읽습니다. 유다는 외적인 헌신의 행위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친구의 상처는 신실하고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곤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 문맥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레오는 키스를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키스를 의미합니다. 키스는 고대 사회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키스로 인사할 것입니다.

평소에는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는 정도였다. 다른 문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내 문화의 위생 감각에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입술에 가벼운 키스였다. 그것은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키스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키스로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뽀뽀로 인사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이마에 뽀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추는 것은 인사하는 행위였지만 동시에 배반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비원이 올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레위인 경찰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로마 군대에 사용된 언어라고 지적합니다. 불행하게도 유대인 문헌을 읽어보면 그것은 다른 곳에서 차용한 유대인 군대를 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니, 아마도 대제사장들의 지휘를 받는 레위인 성전 경비병들이 횃불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횃불을 들고도 무리에 너무 빨리, 너무 갑자기 접근하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요 표적이신 예수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름달이 뜨고 횃불이 있더라도 이미 알고 신뢰하는 유다가 그룹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예수를 식별하여 어떤 수치인지 알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밝은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로 알려진 제자 중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아마도 그는 귀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종 말코스(요한이 그를 이름)라고 이름을 붙인 말코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움직이고 대신 귀가 잘립니다. 기적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누가는 예수께서 어떻게 귀를 고쳐 주셨는지를 언급합니다.

매튜는 그것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Matthew는 몇 가지 다른 문제를 지정합니다. 각 저자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 하나의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칼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의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열두 군단의 천사를 주시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글썄요, 한 군단은 약 6,000명의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 지역에 군단이 주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 많은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들은 성전 산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한 대대를 주둔시켰지만,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완전한 군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는 하나가 있었지만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방이나 유대나 갈릴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12군단의 천사, 즉 내 제자 한 명당 한 군단씩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로마가 인근 군단에서 가졌던 것보다 인간일지라도 더 많은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지경에 이르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피터는 분명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싸울 만큼 용감했지만, 싸울 수도 없으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겨져서 나중에 작가들이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충성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군대가 그를 버리면 장군으로서도 당혹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버렸고, 그분은 앞에 닥칠 고난을 완전히 홀로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혼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왕국의 전투를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싶거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머리에 다가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곳의 산헤드린이 선교법을 위반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슈나는 나중에 나온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미슈나는 바리새주의에서 나온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상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이상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슈나는 서기 220년경, 즉 서기 22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1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요세푸스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모든 증거는 나중에 미슈나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랍비 문헌 자체에서는 성직자 귀족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규칙을 항상 따르지 않았고 종종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일 때 일출의 재판과 비슷한 예비 조사이며, 좀 더 공식적인 것을 위해 다시 모입니다.

정보 유출, 어떻게 알 수 있죠? 음, 누출은 매우 흔했습니다. 고대 문학 곳곳에 로마 원로원의 비공개 회의에서 유출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산헤드린, 유대 산헤드린, 유대 원로원에서 고대 문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사람들과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중 일부가 요세푸스를 괴롭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Josephus는 그의 친구 중 일부가 그에게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은 그가 이 재판에 참석했든 없었든 그의 친구들, 즉 다른 산헤드린교회로부터 재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나머지 신자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 모든 것 외에도,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복음 증거는 만장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중적으로 증명되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다중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에 동의한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예수께서 로마인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글썄, 당신은 아마도 빌라도가 도시에 오기 전에,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제사장 엘리트들을 불쾌하게 할 성전 정화에서부터 점들을 연결합니다.

아마도 고대에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방식, 즉 지역 자치 귀족이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던 방식으로 일이 행해졌음을 시사할 것입니다. 미쉬나가 정확하다면, 위반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쉬나가 원래 산헤드린에서 실제로 행해진 일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견해와 다른 견해의 관점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방식과 일치합니다. 거룩한 날에 재판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일에는 사형이 집행될 수 있지만, 성일에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광범위한 인식은 밤에 재판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프로토콜 위반이었습니다. 또한, 사전 통지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전해졌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산헤드린의 많은 성원들이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밤에, 해가 진 후에 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지지자들,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증인을 심문하는 데 매우 세심했기 때문에 그 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프로토콜 위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재판에서 증인이 허위로 밝혀지면 증인은 처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라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로마법과 기타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증인이 신빙성을 잃은 후에도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즉시 재판은 취소됐어야 했다. 우리가 부패한 지도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이 재판에서 다시 사해 두루마리는 성직자 귀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콤란 공동체의 의의 교사인

사해 두루마리는 그 자신도 박해를 받았고 당시의 대제사장에게서 도망쳐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난 후, 사해 두루마리는 성직자 귀족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전통을 사용하는 랍비 문헌에서는 제사장 귀족이 부패했다고 비난합니다. 요세푸스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서로 반대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중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구약과 달리 대제사장을 복수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제사장 가문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요세푸스에서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은 동료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 후대 로마 총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산헤드린의 모든 사람이 항상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 산헤드린의 여러 파벌이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의 일을 통해 부패가 많았고, 분열 등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이런 부당한 청문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는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대제사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글썄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예, 당신이 말하는 대로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능력으로 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제 그는 시편 110편 1절의 여호와 우편에 앉으신 여호와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와서 왕노릇할 인자를 혼합합니다.

글쎄요, 둘 다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지상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높여진 메시아나 하늘에 계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바입니다. 대제사장에 관한 한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어로 읽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은 나중에 미쉬나 산헤드린의 바리새파 전통에서 의미했던 것과 기술적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반드시 신성한 이름 자체를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례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애도의 표시였으며, 특히 신성모독을 들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 애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꽤 비쌌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런 일을 자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찢으며,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뭐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산헤드린이 대답해야 했던 방식은 적어도 전통에 따르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통에 따르면 71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행사에 모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1은 아마 평균일 거예요. 랍비 전통에서는 71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꿰으려면 대제사장 자신이 한 명 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막내가 먼저 대답하고 그다음에 장남이 대답합니다. 막내는 장남의 영향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곳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성경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로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돌로 쳐 처형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로 치는 것은 린칭이 될 것이며, 그것은 산헤드린, 특히 도시의 로마 총독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언급한 것처럼 때로는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산헤드린 사람들은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금이 필요하지만 요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에 관해 읽습니다. 안나스는 아마도 둘 다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을 것이므로 이 시대에는 둘 다 대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여전히 많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중 다섯 명과 사위가 모두 그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을 임명한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으며, 1세기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로마인들을 매우 행복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빌라도를 매우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빌라도가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나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자료에서 우리가 듣는 이 그룹의 일부였으며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클럽을 이용해 사람들을 학대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나 그는 매우 영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기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신성모독인지 아닌지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기준으로 보면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황제의 위엄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황제가 '좋아,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고객 왕으로 허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한 가지이지만 당신은 왕이 되겠다고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 있는 혐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배신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즉 베드로의 반응과 유다의 반응으로 끝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여러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탉이 울 때 나는 수탉이 있는 곳에 머물렀을 때 잠이 얇게 잤습니다. 밤에 많이 우는 것 같아요. 특히 수탉 울음소리와 관련된 여러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탉이 울었다고 말할 때 특히 일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을 충분히 잤고, 수탉이 울어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하든지, 밤이 채 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는 험박으로 그것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매우 용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용감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그는 대제사장의 뜰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깥뜰은 특정한 경우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레위인 경비병 몇 사람이 모여있었는데, 아마도 그 집의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가 당신을 봤다고 하더군요.

즉, 대제사장의 집은 예루살렘 위쪽 성에 있었습니다. 사원과 매우 가까웠어요. 그녀는 아마 다른 때에도 절에 자주 드나들며 “당신을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처럼 후음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악센트도 그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를 모른다는 것조차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여 부인합니다. 그래서 피터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배반했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미안해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는 배신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고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합니다. 자살. 로마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자살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어거스틴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자살이 있었습니다. 교수형은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이 행했고 일부 유대인들이 마사다와 다른 곳에서 행한 것처럼 칼에 쓰러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형태의 자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다. 아마도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목매어 자살한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 배신에 대한 두 가지 반응.

회개를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면 유다의 방식이 아닌 베드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고한 피라는 주제가 이 사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넘겨준다는 언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는 그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그들의 뜻, 즉 백성의 뜻에 그를 넘겨주지만 대제사장들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무고한 피도 사슬을 지배합니다.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당신 스스로가 확인하세요.

빌라도는 피흘린 죄가 없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는 죄를 부인하는 방법인 손을 씻으며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의 죄인지, 사회의 죄인지에 관해 때때로 죄책감에 관해 논쟁을 벌입니다. 글쎄, 둘 다야. 신명기 21장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살해당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글쎄, 살인자를 찾으면 살인자는 유죄입니다. 하지만 살인자를 찾지 못하면 지역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등거리에 있는 두 공동체 사이에 있다면, 둘 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는 죄의 사슬, 개인, 기업의 죄를 지배하는 무고한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돈을 던져서 낯선 사람을 매장할 밭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음, 우리는 이것을 신성한 어떤 것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럽혀진 피의 돈으로 성전에 목을 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을 거기에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피의 돈이기 때문에 신성한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피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의식의 순결을 걱정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 시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28에 그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왔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옛 궁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를 더럽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까 함이라. 그러나 여기에 순진한 사람이 있고 단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진짜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는 훨씬 덜한 의식 문제에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정치적 편의가 정의에 어긋나는 방식을 봅니다.

글쎄, 예수께서 빌라도 치하에서 처형당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일치합니다. 사실 연대기 15장 44절에 나오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타키투스는 그의 연대기에서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흥미 롭군.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문화에서 그다지 높은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에서는 불량배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요세푸스와 필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필로, 요세푸스에 관해 썼습니다.

그에 대한 비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유일한 것은 그가 나사렛 예수를 처형한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역사에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의 처형이나 로마인의 처형을 암시하는 십자가형에 대한 혐의를 고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가 처형되었다는 혐의, 그의 직함, 그의 머리 위의 표시를 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유대인의 왕을 발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다시 대역죄 혐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처형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처형되도록 넘겨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역적인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 자신도 황제에 대한 선동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항상 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화해하고 싶은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반적인 재판 환경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고소인이 먼저 말합니다. 그런 다음 주지사는 피고인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지사도 콘칠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문, 소수의 고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로마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직원이 없었지만 확실히 일부 고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실제로 그들에게 너무 많이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조언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기억하세요, 그녀는 앞서 동방박사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꿈 속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여기서 성격대로 행동합니까? 나는 앞서 요세푸스와 필로가 그를 깡패로 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량배였지만 다른 불량배들처럼 다른 방향에서 오는 힘에 직면하면 겁쟁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번덕스럽게 사람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마도 세야누스에게 의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야누스(Sejanus)는 로마의 근위병 지사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완전한 신뢰를 받았고, 티베리우스 황제의 완전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편집증 환자였습니다. 그가 편집증적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Sejanus는 Tiberius를 편집증적인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카프리 섬에 있었고 근위병 지사 세야누스는 기본적으로 그를 대신하여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정보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세야누스와 사이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마도 이 장면보다 늦은 31년경 세야누스가 몰락할 때까지 그다지 조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도 단지 승마자였습니다. 그는 상원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한 계급 아래인 기사 계급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주지사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만약 그가 고발을 당하고 로마에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그가 로마 표준을 도입했을 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과시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건 너무나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로 건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성전 금고에서 돈을 압수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했으며,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때때로 유대 사람들에 의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세푸스와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약간의 저항을 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굴복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역 지도자들을 비웃을 기분도 아닙니다. 그는 성격상 꽤 많이 행동한다. 로마법에 따르면,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한 피고는 유죄를 선고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신이 스스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많은 대답을 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고대 문학에 등장하는 군중은 대개 지도자에 의해 쉽게 동요되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특정 사람들이 있었고, 음, 이 군중은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흔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르되 바라바를 구하지 말고 이 사람을 구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는 아마도 군중이 자기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기가 이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는 군중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들의 머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 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갈릴리 순례자들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빌라도에 관한 비문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때 예수를 넘겨줬고, 로마인들도 다시 시리아 보조군이었을지 모르지만 로마인들은 로마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도 라틴어 단어인 *ibis in crucem*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총독들은 이런 말을 하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군중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데려갔고, 예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셨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때때로 채찍질을 하는 동안 사람들의 뼈가 드러났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채찍질 자체로 인해 피를 흘리며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보존하고 싶었지만 채찍질로 죽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포로들을 학대하는 방식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수감자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나는 심지어 일부 교도소에서도, 심지어 반대한다고 말하는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개별 수감자에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는 흔한 일이었고, 이 경우에는 그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찍이 한 유대인 왕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상의 왕으로 그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을 직접적으로 학대한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Ave Caesar, Hail Caesar는 일반적인 경례였습니다.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반유대주의자일 것입니다.

그것은 시리아 보조원들 사이에서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친유대적인 로마인도 있었고 일부 친유대적인 시리아인도 있었지만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흙, 아마도 군용 채찍질에 사용되는 대나무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아마도 아칸서스 관목일 겁니다.

그들은 가시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헬레니즘 봉신 왕자의 왕관을 모방하여 안쪽을 향하기보다는 살이 그의 머리에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덤불에서 무엇인가를 엮을 때, 당신이 관심을 두는 것이 바깥쪽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피 상처에서는 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마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빛 바랜 군인의 망토를 보라색 왕실 예복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중 하나는 보라색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중 하나는 빨간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그리스어 용어의 의미 범위를 살펴보면 이러한 색상은 실제로 자줏빛 빨간색 또는 붉은 보라색과 겹칩니다.

둘 다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클로로시포스에 관해 읽게 되는데, 이를 푸른 말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러나 녹색은 창백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범위는 영어의 의미 범위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색상 용어는 번역할 때 언어마다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리스어 용어의 의미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우주의 정당한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그를 왕으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산데드린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조롱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채찍질은 채찍질 39대에 불과합니다. 로마인들은 편모를 사용했습니다.

이 가죽채찍의 끝에는 뼈나 유리 조각, 기타 날카로운 물건이 엮여 있었습니다. 군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칠 때까지 있는 힘껏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데는 제한도 없었고 39번의 채찍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구타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가십니다. 글썬, 일반적으로 사람은 십자가의 수평 광선, 즉 파티불룸을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전체를 운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직립형 기둥인 팔루스(palus), 즉 직립형 기둥이 처형 장소에 이미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나무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사용 가능한 말뚝을 위해 처형 장소로 끌려간 다음 못을 박거나 밧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못 박혔고, 골로새서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에 고정될 수평 빔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요한복음처럼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모두 로마인들이 이를 위해 방관자를 징집해야 했다고 언급합니다. 글썬, 제 생각에는 그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점을 명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때가 되자 그의 제자들은 어디에도 없었고 로마인들은 그의 자리에 방관자를 징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8회기 마태복음 26-27장입니다.